

“친문 표심 잡아라”...민주 차기 당권주자 10여명 경쟁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물밑 대결

6·13 지방선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물밑 경쟁전이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 직후부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당권은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와도 맞물릴 수 있어 그 함의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에 핵심 역할을 했던 호남 당원들은 어느 인사가 당 대표가 돼야 호남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 자천타천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해찬, 전혜철, 송영길, 이종걸, 김진표, 박영선, 설훈, 안민석, 윤호중, 이인영, 신경민, 박병계, 김두관 의원 등이다. 여기에 송과 을 재선기에 출마한 최재성 전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거론되는 인물만 10여명을 훌쩍 넘어선다.

이들은 당 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판세를 관망하며 지방선거 후보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일단 8월 전대의 핵심 변수는 민주당의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진영의 의중이다. 누가 친문 표심을 잡느냐에 따라 당권의 향배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5월 11일 치러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의 홍영표 의원은 비문 성향 노용래 의원을 78 대 38의 압도적 차이로 눌렀다.

친문 진영의 조직력은 지난 2016년 전당대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추미애 대표가 친문 진영의 적극적 지원으로 선출됐고 정치 신인이자 원외이지만 친문이었다는 양향자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이 재선인 유은혜 의원을 더블스커어로 제치고 여성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친문의 ‘빅 브라더’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이 전대에 출마한다면 친문 진영 인사들이 드러나놓고 경쟁에 나서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국회의장

지역출신 전혜철·송영길 거론

최다선 이해찬 출마 여부 주목

권리당원 27% 호남표심 변수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것도 당권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과거적 색채가 강해다 이미 대표를 지낸 적이 있어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 의원의 성깔은 당내에서도 호불호가 갈린다는 점에서 그의 출마 여부는 미지수다.

호남에서는 목포 출신의 전혜철 의원과 고흥 출신의 송영길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린 호남의 정치적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혜철 의원은 목포 출신이지만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에서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그는 핵심 친문으로 꼽히고 있다. 또 경기도당위원장 지냈다는 점에서 호남의 지지만 확보한다면 ‘호남+영남+수도권’의 황금구도를 창출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송영길 의원은 주목받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전대 패배를 거울삼아 당내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맡는 등 친문 진영과의 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흥 출신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도 거론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의 엄중한 상황에서 전대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호남 표심은 강력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호남 권리당원은 19만 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의 상징성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당은 대표 선출에 있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85%, 일반당원과 시민투표를 15% 반영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준위가 구성되면 당헌·당규 부과를 설치하고 권역별 최고위원제도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당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 선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임종욱기자 tuim@kwangju.co.kr



행복자 아버지 위로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오른쪽 끝)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당시 8세)의 아버지 이귀복(가운데) 씨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대표 “적폐세력 응징하는 선거 될 것”

광주·전남 서남권 후보 지원 나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을 찾아 “적폐세력을 응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19일 신안군 압해읍 천경배 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과 판문점 선언의 국회기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4·27남북정상회담의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고, 70억 전세계 인구가 한반도의 핵이 제거되고 평화가 정착되길 바라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외가 있다”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더

라. 누군지 말하지 않겠다”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추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후보들을 나무란다”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고, 당 지지율이 높다고 자만하지 말고 동네 곳곳을 누빌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전남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전남 서부권 후보들을 지원하는 강행군에 나섰다. 또 지난 18일 광주 한 식당에서 가진 광주지역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서 차관 사퇴 요구에 대해 추 대표는 “광주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민심에 잘 부응하겠다”고 즉답은 피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바른미래 공천갈등 자중지란...지방선거 빨간불

송파을 보궐선거 공천 놓고

안철수·유승민 공개 충돌

최고위원회의서도 결론 못내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바른미래당이 순화구 선거대책위원장의 서울 송파을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집안싸움으로 흔들리고 있다.

특히 합당 주역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공동대표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놓고 갈등을 계속하다가 서울 송파을 재선거 공천을 놓고는 공개 충돌까지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4시까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으나, 당내 계파 갈등을 불러온 송파을 공천은 아예 다루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4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

로 경선을 하기로 했다가 없던 일이 되면서 당에 실망한 2명의 후보가 사퇴했고,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 출신의 박종진 전 종합편성채널 앵커는 공천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출신의 청년위원장은 “안 후보의 사당(私黨)이나 다름없는 바른미래당에 더는 미래가 없다”며 출저어 탈당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내에서는 유 대표와 안 후보 간의 이번 충돌은 공천 문제를 넘어서 차기 당권 경쟁의 ‘전조전’이라는 해석이 있다. 지방선거 이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당 지도부 개편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합당할 때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졌던 안 후보와 유 대표 측이 당내에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파워 게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서울시장에 출마한 안 후보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물러날 경우 당분간 전면대 나서기 어려운 만큼, 7~8월개로 예상되는 전당대

회에서 자신을 대신해 나설 주자가 필요할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순화구 위원장의 송파을 전략공천이 이를 대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차기 당권은 2020년 총선 공천과 2022년 대선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에서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가진 유 대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전국을 도는 강행군을 하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유세를 지원 하는 유 대표는 “지방선거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한 뒤 선거가 끝나면 당 대표직을 비롯해 모든 당직에서 떠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하지만, 지방선거 후 본인이 당직을 떠나더라도 바른미래당에서 함께 옮겨온 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 대표는 차기 대선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당내 지분 확장이 절실하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빼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